

보도시점 2024. 7. 24.(수) 14:00 (2024. 7. 25.(수) 조간)

60+ 계속고용과 40·50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제도와 관행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 현장 방문 및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수)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방문하여 중장년 훈련생들을 격려하고,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근로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장년 직업훈련 투자 확대 >

이정식 장관은 폴리텍대 ‘신중년 특화 훈련 프로그램’ 중 지능형에너지설비 및 전기 훈련과정을 시찰하고, 훈련생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올해 25개소, 1.5만명 수준에서 ’26년까지 35개소,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하여 훈련 수요가 높고, 취업률이 우수한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으로 현재 7천여 명인 훈련 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라며 중장년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밝혔다.

<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발제 및 토론) >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경희대 엄상민 교수가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엄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우리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고용 제도 운영 사업체 회귀분석 결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며, 직무급 또는 직능급을 운영하거나 호봉급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일수록 재고용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정책 재편 관련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법제, 재취업 현장 수요,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등 분야별로 주요 의제에 대해 토의했다.

< 중장년 계속고용 확산·정착 >

전문가 발제 및 토론에 이어 이정식 장관은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40·50 중장년과 60+ 고령층의 숙련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지, 그 해법을 찾는 데 달려있다.”라면서

60+ 계속고용과 관련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전보나 전직과 같은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며, “노사 자율적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또한, “40·50 재직자의 준비된 퇴직문화 마련과 퇴직 후 원하는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중장년 재직자 누구나 주기적으로 생애경력개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 재직자에 대한 리스킬링(Re-Skilling)과 업스킬링(Up-Skilling)에도 더욱 힘쓰겠다.”라면서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재설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을 거쳐 채용 지원」 까지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전환 희망자에 대한 현장 직무경험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노·사·전문가 간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붙임2. 전문가 간담회 발제자료 (주요 내용)

붙임 1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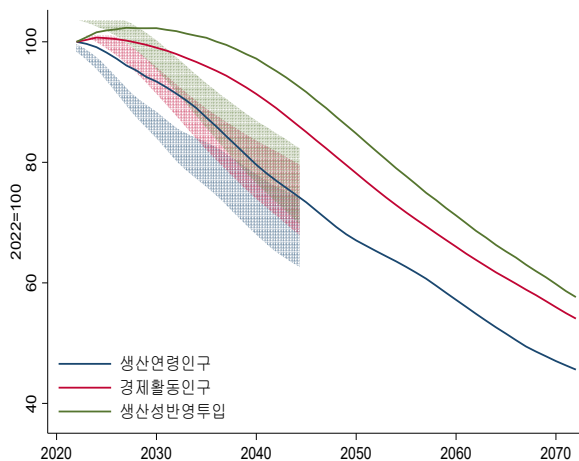
- **목적:** 폴리텍 중장년 훈련 프로그램 시찰,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통해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 등 논의
- **일시 및 장소:** '24. 7. 24.(수) 14:00~15:40(100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구)
- **주요 참석자**
 - (고용부) 장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 (폴리텍) 기획훈련이사, I 대학 학장(서울정수캠퍼스) 등
 - (전문가) ^(발제)경희대 엄상민 교수, ^(토론)한양대 이상민 교수, 충남대 김기선 교수, KT 남현희 센터장, 제이엠커리어 유주성 팀장, 한고원 이상현 박사 등
- **주요 내용**
 - ① 폴리텍대 훈련현장 시찰 및 훈련생 간담회
 - ② 중장년 고용정책 전문가 간담회
- **행사식순 (약 100분)** ※ <1부> 부터 공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사전 티타임	본관 1층 → 본관 4층 학장실
14:10~14:50 (40)	▷ <1부> 훈련현장 점검 및 간담회 * 지능형에너지설비 → 전기 * 신중년 특화훈련 현장 간담회	2공학관 1층(본관 좌측) → 2공학관 4층 → 2공학관 2층
14:50~15:40 (50)	▷ <2부> 중장년 고용정책 전문가 간담회 * 고용부 장관 모두발언 * (발제) 엄상민 교수(경희대) * (토론) ①이상민 교수(한양대) [임금체계 개편] ②김기선 교수(충남대) [계속고용 법제] ③남현희 센터장(KT) [중장년 재취업] ④유주성 팀장(제이엠커리어) [중장년 재취업] ⑤이상현 박사(한고원)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 고용부 장관 마무리 말씀	학생회관 2층
15:40	▷ 기념촬영 및 환송	본관 1층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엄상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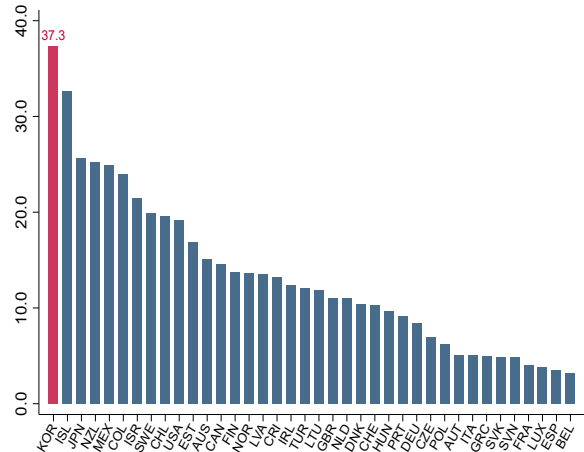
- ① 인구 고령화는 우리경제의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인적자본 활용이 이를 완화할 가능성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2년 대비 2032년에는 91%, 2042년에는 77% 수준으로 감소(중위시나리오 기준)
 -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와 노동의 질적 개선은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음
 -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감안한 경제활동인구나 학력별 생산성 차이 등을 감안한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은 생산인구에 비해 훨씬 더디게 감소

<장래노동투입 전망치>



주: 음영은 장래인구추계 저위 및 고위 시나리오
자료: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이철희(2020)의 방식을 따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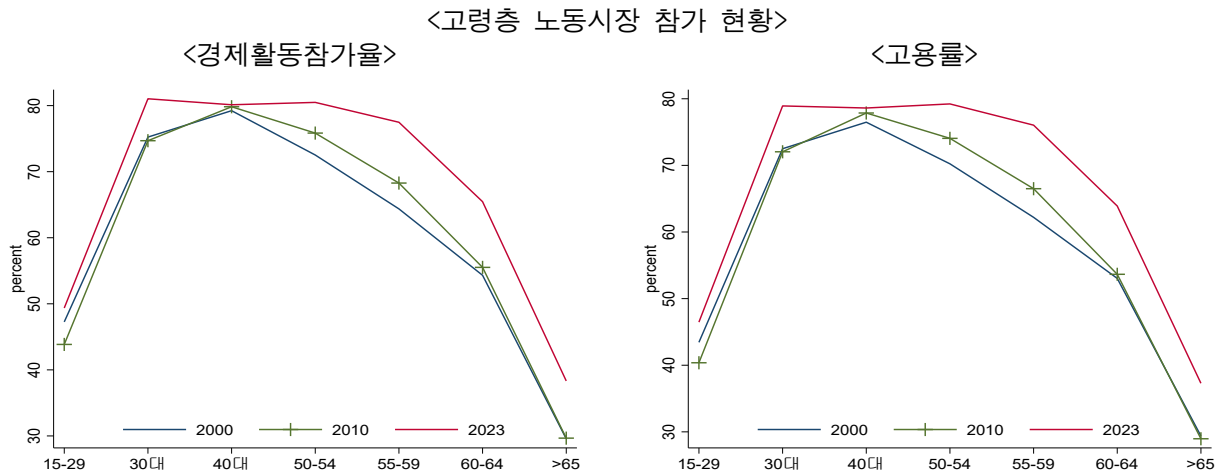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동시장 참가율>



주: 2022년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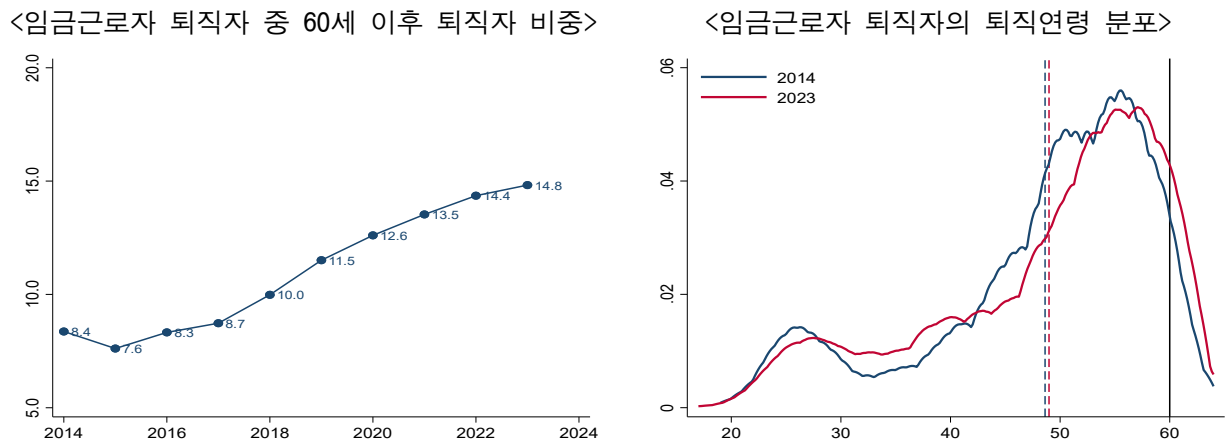
② 최근 고령 근로자의 특징

- 최근의 고령(55세 이상) 근로자는 과거에 비해 노동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
 - 고령자(55세 이상) 중에서도 최근 코호트일수록 근로 의지가 강하고 오래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 근로자의 법정정년연령(60세) 이후 퇴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중반 이후 퇴직자의 퇴직 연령이 늦어지고 있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

③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큼

- 고숙련 고령자 활용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업체에 집중되는 모습
 - * 계속고용 업체는 고숙련 서비스업이나 디지털 활용도가 높고 생산성이 높은 업체 등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집중
-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 운영 사업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 (1)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며 (2) 외부 임금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3) 직무급 또는 직능급을 운영하거나 (4) 호봉급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일 수록 재고용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